

# 세이프 코리아

vol.36 2014 autumn SAFE KOREA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고,  
낚싯대 하나 드리운 채 책을 읽고,  
자연 속에 파묻혀 하룻밤을 보내기에  
가장 완벽한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의 낭만과 아름다움 역시 안전을 생각할 때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부터 지킨 안전수칙은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물들일 것입니다.

산불조심

곰출현  
주의

멧돼지출현  
주의

소방방재청



르네 라에네크

*René Laennec, 1781-1826*

프랑스의 의학자이자 청진법의 창시자. 청진기를 발명한 이후 3년 동안 많은 환자를 청진해 다양한 음을 기록하고,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 병형(病型)과 대조해 그 음이 어떤 병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냈다. 그의 발명 덕에 청음에 의한 진료가 간단하고 확실해졌고, 의료 행위의 모습 또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 의사의 귀는 청진기

위대한 발명은 대개 사소한 발견에서 시작되곤 한다. 오늘날 의사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구인 청진기. 청진기의 발명 역시 아이들의 놀이를 유심히 관찰한 데서 비롯되었다. 청진기의 탄생 덕분에 남성 의사들은 여성 환자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는 민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글 이현주 / 도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 마로니에북스, 책 철로너 지음

프랑스의 의학자 르네 라에네크가 1816년의 어느 날 파리 루브르궁 안뜰을 산책하고 있을 때, 몇몇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속이 빈 나무막대기의 한쪽 끝을 귀에 대고 두드리며 놀고 있었다. 그것을 본 라에네크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 같은 방법으로 환자의 심장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겠다는 것. 병원으로 돌아온 라에네크는 우선 종이를 돌돌 말아 환자의 가슴에 대보았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이를 발전시켜 라에네크는 세상에 처음으로 청진기를 내놓았다. 그가 선보인 최초의 청진기는 길이 약 22cm, 직경 약 2.5cm의 속이 빈 나무관이었다. 오늘날과 달리 한쪽 귀로만 들을 수 있어 당시 청진기는 ‘모노럴(monaural)’이라 불렸다. 라에네크는 이후 3년에 걸쳐 자신의 작품을 다듬었고, 이 과정은 1819년 발간된 그의 저서 <간접 청진법에 대하여 De l'auscultation médiate>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 뉴욕의 내과의사 조지 P. 캐먼이 오늘날과 같은 쌍이식 청진기를 고안해낸 이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청진기를 개발했고,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876년 세워진 부산제생의원이나 1885년 서울에 들어선 국내 최초 병원 제중원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진기(聽診器)’의 기능은 곧 그 이름이 설명해준다. 체내에서 발생하는 심장음이나 호흡음을 비롯한 다양한 소리를 모아 귀로 듣게 해주는 것. 정확히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것이 아닌, 진동수를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진기의 기능은 거기까지. 환자의 이상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숙련된 의사의 몫이다. ‘의사의 귀’ 역할을 하는 청진기는 점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에는 디지털 방식의 전자청진기까지 등장했다. 청진기를 발명해 의학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자신의 청진기로 폐질환을 발견하고 45세로 세상을 떠난 라에네크도 오늘날의 청진기를 본다면 분명 감탄해 마지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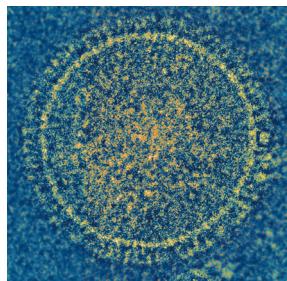
세이프코리아 2014년 3호 통권 제36호 • 발행인 남상호 • 발행일 2014년 9월 30일  
발행처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02-2100-5147 • 기획·제작 plus8studios 02-542-0810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F • 홈페이지 [www.nema.go.kr](http://www.nema.go.kr)

〈세이프코리아〉는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사항을 준수합니다.  
글과 그림의 저작권은 소방방재청에 있습니다.  
구독 및 제작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02-2100-5147 / [www.nema.go.kr](http://www.nema.go.kr)

### cover story

을 가을, 대한민국은 '안전'으로 물들어갑니다.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나는 가을철에는 안전 사고도 잦아집니다. 소방방재청은 독자들이  
안심하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세이프코리아〉 가을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러스트 황소미

## CONTENTS



08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에볼라와 같은 바이러스는  
언제든 '인간 숙주'를  
정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14

사람보다 50배, 1만 배  
이상 뛰어난 청각, 후각으로  
실종자를 찾는 인명구조견과  
그들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핸들러의  
이야기.



18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화재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승희  
소방장. 전문가로 화재  
현장에 나서고 싶었다는  
그의 화재조사관 도전기.



30

캠핑, 등산, 낚시,  
자전거 타기 등의  
야외 활동에는 위험  
요소도 다양하다.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보다 이롭다운 추억을  
만들도록 하자.

### 02 안전 발명품

의사의 귀는 청진기

### Special Theme

#### 04 Special Theme 1

사각지대 없는 '세이프 코리아'를 위하여

#### 08 Special Theme 2

다 열리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  
바이러스

### Story from NEMA

#### 14 소방방재청이 궁금해요

숨은 희망을 찾는, 환상의 파트너

#### 18 나는 소방관이다

꽃보다 화재조사관

#### 20 안전 체험 여행

아이들 스스로 배우는  
즐거운 교통안전

#### 22 트라우마 테라피

나의 그림이 위로를 건네는 순간

### 24 NEMA NEWS

### Safe Korea, Safe Life

#### 28 그 영화 속 이야기

진짜 재난은 우리 안에 있다

#### 30 계절 안전 퀴즈

가을, 원더풀 아웃도어 라이프

#### 34 식탁 위의 행복

참 착한 단맛

#### 36 힘이 되는 생활 안전 정보

조금 주의하면 훨씬 재미있는 놀이공원

#### 38 구급상자의 재구성

집 나설 때 더 필요한 구급약

#### 39 초록별 환경보고서

우리만 몰랐던 이야기

## 소방방재청 2014년 추진전략 3 맞춤형 안전복지영역 확대

# 사각지대 없는 '세이프 코리아'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소방방재청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재난에 맞서 맞춤형 안전복지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해 '안전 체감 온도'를 계속 높인다는 계획이다. 글 이경아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긴급대응, 'U-119 안심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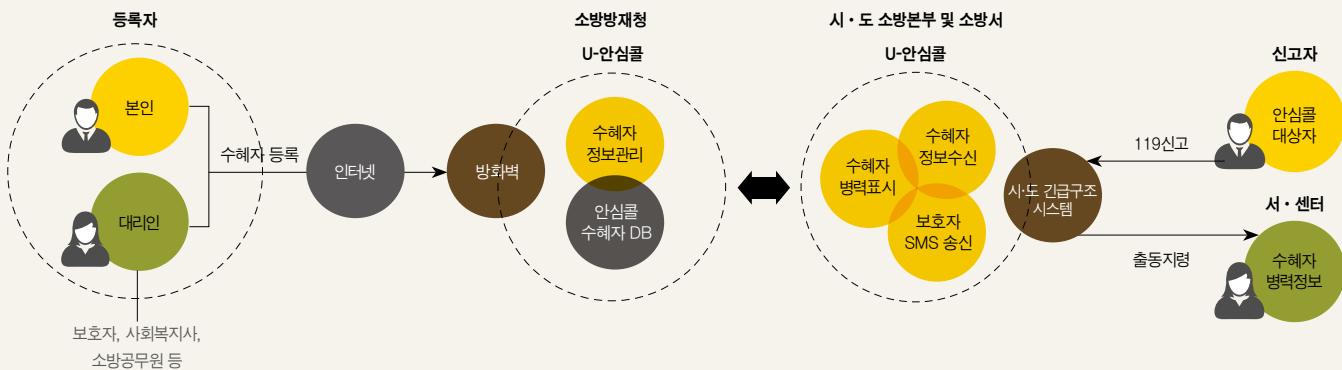
# 01

U-119 안심콜 서비스는 구조·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하기 전 홈페이지(u119.nema.go.kr)에 등록된 독거노인, 장애인, 질병보유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긴급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29만53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지난해에만 6877명이 서비스를 받은 바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U-119 안심콜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나 주소 등이 가장 최근의 정보로 등록돼 있어야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한 달간 U-119 안심콜 서비스를 일제히 정비했다. 등록돼 있는 보호자에게는 문자로 119 신고접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로부터 홀로 사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스마트폰으로 보다 손쉽게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119 안심 안심콜 앱'을 제공할 예정이다.

U-119 안심콜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구축된 '유비쿼터스 119 시스템' 중 하나이다. 유비쿼터스 119 시스템에는 또 다른 안전취약계층인 외국인을 위한 'Help Me 119' 서비스가 마련돼 긴급상황에 처해 있는 외국어 사용자와 상황실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해 주고 있다.

### U-119 안심콜 서비스



##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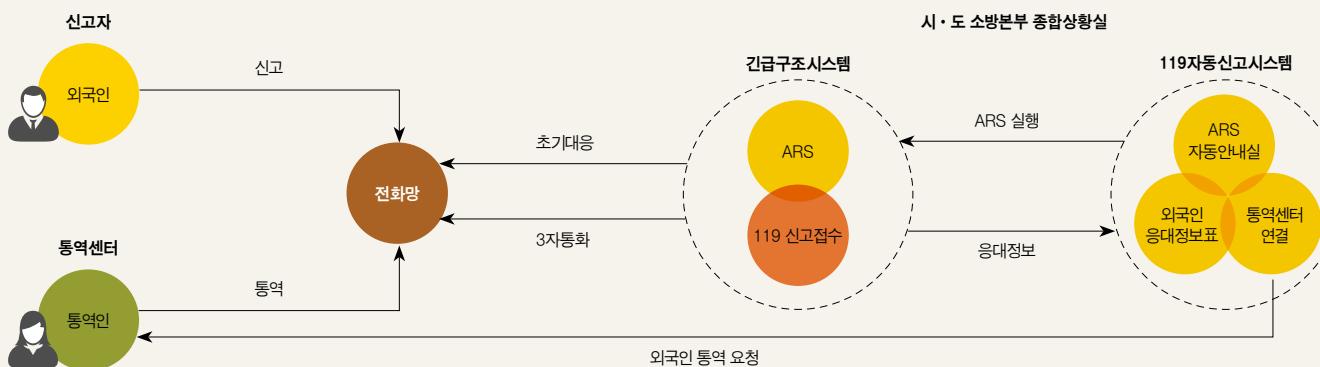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생계 복귀를 돋는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피해주민이 받을 수 있는 간접 지원은 7개 분야로 국세 납기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전기·통신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이다. 기존에는 관련 기관별로 일일이 신청해야 해 불편을 겪었지만 원스톱 서비스로 시·군·구청에 한 번만 신고하면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8월 25일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25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지역 시·군·구청은 피해주민들을 위한 7개 분야 간접 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시행한 바 있다.

피해 조사 기록 및 정리 또한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피해 조사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사무실에서 수작업으로 정리한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해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시설물의 피해상황을 조사·입력한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해대장에 바로 이관이 가능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Help Me 119 서비스



## 365일 운영되는 재난심리상담전화

# 03

재난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도울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재난심리상담전화 ‘희망의 전화’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센터별로 개별적인 재난심리상담 전화번호를 사용해 접근이 어렵고, 홍보 부족 및 상담 신청 불편으로 실적이 저조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인 단일 전화번호를 개설해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결번호는 1899-6365번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의 대형 사고를 계기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재난피해자 대상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피해자들은 우울 증세와 대인기피 증세 등으로 대면상담에 소극적인 편이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이나 농어민 등은 시·도마다 설치된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워 상담을 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재난피해자 연 6만 7000여 명 가운데 실제 상담이 이뤄진 인원은 2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1차 전화상담으로 효과가 미흡할 경우 2차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으로 연계하도록 했으며, 올해 시범 사업 후 성과 분석과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에 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마음에 남은 재난,  
재난심리전문가가 치유해 드립니다  
소방방재청 재난심리상담정보센터

재난심리상담정보센터는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겪은 재난경험자들의 충격을 해소하고 정신 건강 증진 및 심리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경험자란 재난이 발생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 목격자, 구호·봉사·지원·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중 정신적 충격을 입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센터에서는 이들을 위해 방문·전화·온라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치료, 캠프활동 등의 심리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센터의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의 재난심리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난심리지원 기초 조사 및 활성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중앙부처·지자체·유관단체·학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난경험자라면 누구나 재난심리상담정보센터 홈페이지([www.dmhs.go.kr](http://www.dmhs.go.kr))를 통해 사이버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재난심리상담센터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 시 방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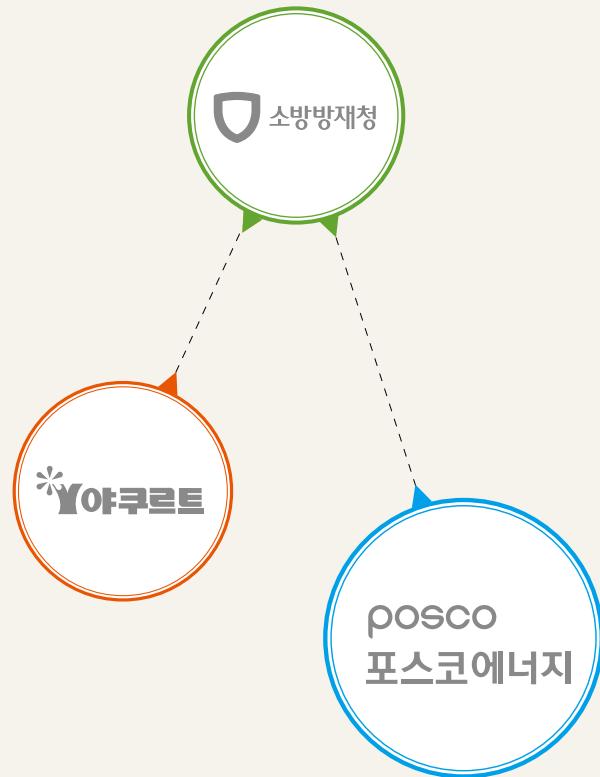
##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복지 서비스

# 04

소방방재청은 포스코에너지(주), 한국야쿠르트 등과 협약을 맺고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소방방재청은 포스코에너지(주)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재능 기부 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업무 협력 및 정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이 지역사회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에 상호 협력하고, 재난취약계층 및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소방방재청은 정부 예산 투입이 곤란한 민간 소유의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포스코에너지(주)로부터 재능기부 형식으로 5억 원을 후원받았다. 후원금은 노후된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인해 붕괴, 화재 등의 위험한 환경에 처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쓰인다. 소방방재청은 주택 신축 1가구, 에너지 노후설비 정비(가구·사회복지시설) 18개소, 설비점검 40가구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소방방재청은 한국야쿠르트와 함께 재난피해주민 30명에게 생활 안전 자금 6,0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화재나 구조·구급상황에서 만난 재난피해주민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30 가구를 소방방재청이 직접 선정했고, 한국야쿠르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받아 각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전했다. 또 지원 가정으로 선정된 이웃을 방문해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살핌'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 밖에도 소방방재청과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12월 '골목길 안전지킴이 프로젝트'의 공동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594개 한국야쿠르트 영업점과 관할 소방서를 연계해 '야쿠르트 아줌마' 7000여 명을 '골목길 안전지킴이'로 위촉했으며, 영업 활동 중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등의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 Spanish influenza Ebola virus

## 다 열리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 바이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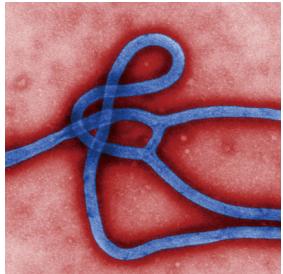
우리는 '나 혼자' 철저히 위생을 관리한다고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발생한 감염병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세계보건 기구(WHO)는 지난 8월 8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선포했다. 그 후 9월 7일 기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5개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는 4390명, 사망자는 2226명에 이르렀다. 90%에 가까운 치사율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에볼라와 같은 바이러스는 언제든 '인간 속주'를 정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백신을 무기로 저항하는 인간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글 이경아 / 도움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 Avian Influenza Pandemic SARS

## 아프리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는 올해 새롭게 발견된 신종바이러스가 아니다. 지난 1976년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에볼라 강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올해 이전까지는 주로 고립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유행해 왔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5개국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가장 유력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되고 있는 과일박쥐를 날 것으로 섭취하는 전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의학보다 주술과 마술을 신봉하며 방역이나 보건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에볼라 출혈열(Ebola haemorrhagic fever)’이라고도 불리는데, 2~12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근육통 등의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내부 장기 및 전신 출혈이 진행되는 까닭이다. 25~90%의 치사율로 치명적이지만, 감염된 사람의 땀, 침, 혈액 등의 체액과 직접 접촉했을 경우에만 감염되며,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에볼라 안전 Q&A

**벌레(모기, 파리 등)나 음식물을 통해서, 혹은 지하철이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 묻어 있는 땀 등에 의해서도 전염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있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체액이 인체 내로 유입될 경우에만 감염된다. 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의 잠복기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감염될 수 있는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된다.

**국내 또는 한국인 중에 에볼라 발병 사례가 있는가?**

국내 가주 외국인, 해외 거주 한국인, 또 우리 국민 중 에볼라 발병 사례는 아직 없다. 정부는 공항과 항만의 입국 절차에서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의심된다면?**

에볼라 발병국 혹은 그 인접 국가에서 국내 입국 시, 감염이 의심된다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입국 후 증상이 의심되면 에볼라 대응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한다.

또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는 감염되지 않아 전파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난 2009년의 ‘신종플루’처럼 세계적인 대유행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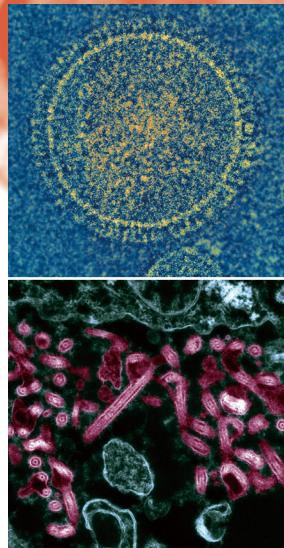
그럼에도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까닭은 치료제가 없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또한 연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자들에게는 쇼크 상태, 혈액량 저하, 출혈 경향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서아프리카 5개국 중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라이베리아는 국가 기능이 마비되며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판데믹’  
만약 에볼라가 빠른 시간 내에 인체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였다면 지금  
전 세계는 바이러스 ‘판데믹(pandemic)’을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판데믹은  
전염병이 2개 대륙 이상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을 뜻하며, WHO 전염병  
정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된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판데믹은  
2000~5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했던  
'스페인독감'이다. 1918~1919년에 유행했던  
이 감염병은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무오년  
독감'으로 불리며 740만여 명이 감염돼  
14만여 명이 희생된 바 있다.

의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10~40년의 일정한 주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스페인 독감 이후 1957년  
아시아독감(사망자 100만 명 추정),  
1968년 홍콩독감(사망자 80만 명  
추정)을 판데믹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9년 6월 WHO는 '신종플루'로 불린  
'인플루엔자A(H1N1)'를 판데믹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 인플루엔자A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바이러스로,  
멕시코와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 214개국 이상의 나라로  
확산돼 1만85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국내에서는 2010년 6월 12일 기준 사망자가  
263명이었으며, 같은 해 4월 30일 기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은 환자는 358만 명,  
4월 1일 기준 예방접종은 1463만 건으로  
기록됐다.



현재는 상품명 '타미플루'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치료가 가능한  
신종플루지만 당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이름 그대로 '신종'이었기 때문이다.  
돼지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되면서  
새롭게 변형된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희생된 것이다.

스페인독감과 조류독감의 상관관계  
대표적인 판데믹인 스페인독감이 발병할  
당시에는 바이러스를 분리·보존하는 기술이  
없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다 90여 년이 흐른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알래스카에 묻혀 있던 한  
여성의 폐 조직에서 스페인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 재생하는 데 성공하면서 드디어  
정체를 밝힐 수 있었다. 바로 조류에서  
유래된 H1N1형의 인플루엔자A였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조류독감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 특이성을 갖고 있다. 즉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에,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감염을 일으킨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8개 유전자(RNA) 조각들은 각각 변이가 가능하고, 사람,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양하게 재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변형된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로, 조류독감 변종바이러스의 경우 종 특이성을 극복해 드물지만 사람에게도 감염이 가능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AI의 인체 감염 사례가 없으나, 2003년 12월 이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인체 감염자가 발생해 2009년 3월 기준 413명이 감염되고 256명이 사망했으며, 감염자 및 사망자는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닭, 오리 등과 접촉한 사람이며,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AI 발생 시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km 이내의 닭이나 오리,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km 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이동 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오염된 닭, 오리, 달걀이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 또한 닭, 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 검사를 실시해 건강한 개체만 도축돼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C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할 경우 감염 가능성은 없다.

### AI·구제역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고병원성 AI 발생 시 증상

닭: 감염 후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 침울해지며 졸음 증상을 보인다. 4~5일 후 50%의 폐사율을 보이며 이후 거의 100% 폐사한다. 벼슬 및 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붓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다.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난다.

오리: 역시 감염 후 사료 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산란용 오리는 급격한 산란을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며 회복하며 육용 오리는 사료 섭취량이 갑자기 감소하고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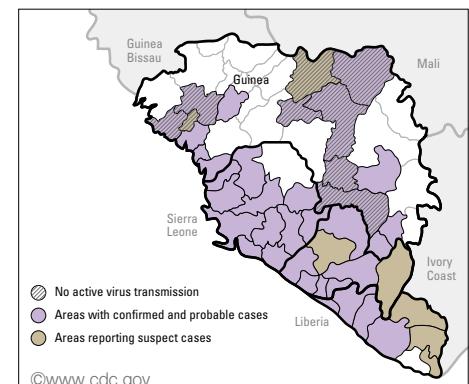
#### 구제역 발생 시 증상

돼지: 감염 후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관찰되며, 발굽의 수포가 파열돼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발톱이 빠지기도 한다. 새끼 돼지는 50% 정도 폐사하며, 때로는 어미 돼지가 죽기도 한다.

소: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잇몸·발굽·유두 등에 수포가 생기며 수포가 파열되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폐사율은 낮으나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고 절룩거리며 유방염 발생, 산유량 50% 이상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 농가별 조치사항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가축·사료·약품·분뇨·기계류 등의 운반 차량 및 사람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한다.
- 농장 및 축사 출입 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신발을 소독한 후 출입한다.
-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한다.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고, 부득이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해 소독 조치를 받는다.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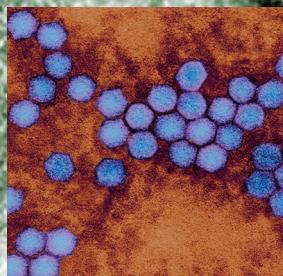


## 올바른 손 씻기로

### 감염병 예방

각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제거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의 50~70%, 폐렴, 농가진, 설사질환의 40~50% 이상을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다. 손 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먼저 손을 적신 후 손 소독제나 비누를 칠한 다음 구석 구석을 뾰득뾰득하게 씻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분 즉 손끝, 손가락 사이, 엄지 손가락의 등쪽 부분까지 신경써야 한다. 다 씻은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헹군 후 물기를 닦아낸다. 종이 타월을 쓰면 더 좋다.

- 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준다.
- ②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준다.
- ③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준다.
- ④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
- ⑤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 ⑥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 이기심과 인류애가 공존하는 지구

지난 2002~2003년 유행했던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는 774명의 사망자를 낳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는데, 사스의 원인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게서 사향고양이로, 이 사향고양이를 요리하던 요리사에게로 옮겨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사례였다.

여기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들에 감염된 사람들의 치사율이 높은 까닭 역시 에볼라가 야생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매개체인 과일박쥐 등의 야생 동물을 숙주로 삼아 증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이라는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 또한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해 사망하는 것이다. 보다 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없으니 이는 바이러스에게도 손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한 밀림 파괴, 오지 여행 등을 통해 야생에 적응해 있던 바이러스를 인간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곧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들인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한다. 신종 바이러스가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를 계속 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류를 향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빌 게이츠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에볼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응급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달러(512억 5000만 원)를 기부했다. 또한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의 10%에 달하는 250여 명이 감염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임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는 160여 명의 의료진을 시에라리온에 파견했다.

서아프리카를 구하기 위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에볼라 백신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제약업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과 미국 국립보건원은 공동 개발 중인 에볼라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1만 개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며, WHO의 승인을 받아 에볼라 감염지역에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무한한 변신이 가능한 바이러스는 현재의 '에볼라 사태'처럼 언제 어디서든 전 인류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인 모니터링과 백신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많은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한 밀림 파괴, 오지 여행 등을 통해 야생에 적응해 있던 바이러스를 인간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곧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들인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한다.



## 숨은 희망을 찾는, 환상의 파트너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대형 재난이 훨씬들고 간 폐허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생존자를 구조하고 사체를 찾아낸다. 사람보다 50배, 1만 배 이상 뛰어난 청각, 후각으로 실종자를 찾는 인명구조견과 구조견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핸들러.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가장 먼저 희망을 발견해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김아름 / 사진 이창주





현재 국내에는 22마리의 인명구조견(이하 ‘구조견’)과 22명의 핸들러가 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500여 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해 13명의 생존자와 9구의 사체를 찾아냈다. 끈끈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구조견과 핸들러들. 그들을 배출해낸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는 3마리의 구조견과 12마리의 훈련견이 있다.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는 매년 일정 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훈련견 모집공고를 내, 그 가운데서 훈련견을 선발한다. 품종에는 제한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체력과 체격을 갖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 사람을 구하는 구조견의 특성상 제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있다면 부적합하다. 선발된 이후에도 훈련을 통해 본래의 공격성을 잠재우기 때문에 구조견은 절대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는다.

구조견은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실종자를 짧은 시간에 찾아낸다.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활동 중인 구조견 ‘케빈’과 담당 핸들러 박해영 대원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지난 6월 강원도 화천으로 산삼을 캐러갔다 실종된 50대 남성을 찾기 위해 군·경은 18일 동안 온 산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구조견은 마지막 대안이었고, 그때 투입된 구조견이 바로 케빈. 투입된 지 3~4시간 가량 됐을 무렵, 갑자기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을 향해 쉬지 않고 짖어댔다. 실제로 실종자가 발견된 장소는 절벽의 중턱이자 지상으로부터 200m 가량 되는 높은 지점. 절벽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취기(냄새)를 정확히 감지한 케빈 덕분에 유족은 그 시신이나마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구조견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실종자를 구별해낼까. 이에 대한 답은 정소애 훈련교관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다. 따라서 구조견은 절대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는다.

“구조견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찾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람 냄새를 구별하

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든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취기가 강해지는데, 그 강한 취기에 반응하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 실종자 구조의 숨은 주역, 훈련교관

구조견과 핸들러가 현장에서 실종자를 구하기까지는 훈련교관의 역할이 크다. 어린 개를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 개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는 초보 핸들러를 교육하는 것도 훈련교관의 일이다.

단체사육이 가능한 6~12개월 사이의 개를 훈련 견으로 선발하는데, 훈련교관은 이때부터 구조 견으로 합격할 때까지, 3~4마리의 개를 동시에 훈련시킨다. 첫 훈련은 다른 사람이나 개들과 친해지는 사회성 훈련이며, 점차 높은 강도의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주요 훈련은 각종 상황적 응훈련으로 다양한 지면 상황에 적응하고, 훈련 교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지도하는 것. 대부분의 출동 지역이 혐하기 때문에 훈련 또한 움직이는 지면이나 봉괴지, 산 등 위험한 곳에서 이뤄진다. 또한 눈이나 비, 개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더위에도 훈련을 진행하고, 소리적응훈련을 통해 갑작스러운 소리에 동요하지 않도록 한다. 훈련 중간중간 칭찬의 의미로 간식이나 장난감 등을 주어, 훈련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 실제 구조 현장에서는 목표물인 실종자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칭찬해줌으로써 자신이 한 행동이 옳은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부상이 잦은 훈련견들의 건강관리 역시 훈련교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아침에 한 번, 훈련이 끝나고 한 번, 몸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대소변 상태를 통해 건강을 확인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 보이는 훈련견은 훈련 대신, 즐거운 놀이나



목욕을 통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친 훈련견에게는 구조견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에 합격한 훈련견은 진짜 인명구조견이 되어 4~5년간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활동하게 된다.

### 핸들러, 구조견과 마음으로 대화하다

훈련교관이 어린 개를 키우고 가르치는 엄마 같은 존재라면 핸들러는 구조견과 함께 일하고 놀고 훈련하는 친구이자 동반자와 같다. 구조견의 능력은 온전히 핸들러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오직 담당 핸들러의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재훈련받기 때문에 핸들러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구조견의 컨디션을 살피지 않는다면, 원활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없다. 때문에 소방대원으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물론, 평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핸들러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둘 사이의 교감과 호흡이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에 충분히 교감하고 호흡을 맞춰야 구조 활동의 결과가 좋아진다. 본부 내 긴급기동팀에서 근무하며 핸들러의 꿈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  
구조견 심총사

왼쪽부터  
케빈 Kevin (남·4살)  
벨기에 말리노이즈·경력 2년 6개월

앤디 Andy (남·6살)  
보더 콜리·경력 4개월  
조 Cho (남·3살)  
벨기에 말리노이즈·경력 1년 7개월



을 갖게 되었다는 박해영 핸들러는 케빈과 친해지는 데 자그마치 6개월이 걸렸다. 구조견은 은퇴할 때까지 동일한 핸들러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케빈은 이미 다른 핸들러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어 바뀐 핸들러를 낯설어 했던 것. 이후 끊임없는 애정공세와 더불어 자신이 ‘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며 겨우 마음을 얻었을 수 있었다고.

박해영 핸들러는 “구조견과 함께 출동해 사람을 구했을 때 더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사히 요구조차를 구할 때면 이 직업을 택한 것에 스스로 감사하게 된다고. 그러나 감동만큼 위험도 크다. 냄새와 소리를 쫓는 구조견은 주로 등산로를 한참 벗어난 우거진 숲을 수색하는 일이 많은데, 핸들러 역시 구조견을 따라 험한 길을 헤치고 다녀야 한다.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고 부상의 위험도 높다. 벌에게 쏘이거나 뱀에게 물리는 일도 종종 생긴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구조견, 요구조차 모두의 안전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어깨도 더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영 핸들러는 재난 현장에서 구조견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길 바랐다.

“외국에서는 실종자 구조에 가장 먼저 구조견이 나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소방대원조차 구조견을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수색이 종료될 시점에야 저희를 부르죠. 그땐 이미 온 산이 사람 냄새로 가득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구조견은 오래 걸리지 않아 실종자를 발견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수색한다면 사체가 아니라 생존자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낮으로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 보인다.



## Interview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 정진복 센터장

세계최고의 구조견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중앙119구조본부와 인명구조견센터를 소개해주세요

소방방재청의 직속 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를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출동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교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명구조견센터는 중앙119구조본부 내 한 팀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발생한 실종자를 발견·구출하기 위해 인명구조견을 양성하고 운용하는 곳입니다. 시·도 자체적으로 구조견을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양성한 뒤 각 시·도로 보급합니다. 인명구조견을 관리하는 핸들러 역시 이곳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인명구조견센터, 대구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중앙 119구조본부와 인명구조견센터는 대구 지역 소방타운으로 이전합니다. 현재는 훈련시설이 컨테이너나 건물 형식으로 지어져 있어 구조견 훈련에 특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훈련장은 세계 최고의 시설로 지어져 앞으로 훈련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현재보다 운용 두수를 늘리기 위해 전문훈련교관과 핸들러를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수의사 고용도 고려 중입니다.

### 인명구조견센터장으로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명구조견센터는 체계화된 훈련을 통해 양성된 우수한 구조견으로 실종자를 구출하는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구조견이 세계 무대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15~30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제20회 세계인명구조견대회’에 구조견 케빈과 박해영 핸들러가 출전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내외에 우리나라 구조견의 우수함을 알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대문소방서 현장지휘대 2팀  
진승희 소방장

## 꽃보다 화재조사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소방관 중에는 불이 난 원인을 밝혀내는 화재조사관이 있다. 그리고 서대문소방서에는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화재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승희 소방장이 있다. 여성이기 이전에 한 명의 소방관이며, 꽃처럼 앉아있기보다는 전문가로 화재 현장에 나서고 싶었다는 그의 화재조사관 도전기를 들어봤다. 글 이경아 / 사진 이창주



## 첫 불꽃을 추적하는 탐정

“아무리 불을 잘 끈다 해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다음 화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화재조사관은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던 업무였습니다.”

지난해 12주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진승희 소방장은 지난 7월 10일 화재조사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화재의 시작점인 ‘첫 불꽃’을 끈질기게 추적해 찾아내고, 피해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사고를 마무리 짓는 일이 화재조사관에게 주어진 임무다. 흡사 탐정과도 같은 이들의 업무는 화재 신고가 접수됨과 동시에 시작된다. 화재진압대원, 구조·구급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연기, 화염, 번지는 속도 등을 주시하면서 화재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또 피해자, 목격자 등 화재와 관련된 관계인의 증언을 기록하며 정보를 취합한다. 화재조사관들은 화재가 진압된 직후 본격적인 원인 감식을 위해 유독 가스가 채 가시지 않은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 속에도 단서는 있습니다. 모든 화재는 다양한 ‘화재 패턴’으로 시작적인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연기, 냄새, 분진, 그을음, 잔화물 등의 모든 요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물질이 타는 고유의 성질을 이해하고 응용함으로써 화재가 나기 직전까지 ‘역추론’해 나갑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지 이제 2개월 남짓, 최근 진 소방장은 한 일식음식점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조사하며 뿌듯함을 맛봤다. 유난히 원인을 찾기 힘든 현장이었고, 결국 1차 조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경찰 수사팀, 과학수사대와 함께 2차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수사팀은 방화로 가닥을 잡고 당시 사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 종업원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진 소방장이 느끼기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고, 그는 다른 가능성은 포기하지 않고 조사에 몰두했다. 그러자 영화와도 같은 반전이 일어났다. 범인은 사람이 아닌 철통에 담겨 있던 표백제였던 것이다.

“표백가루, 일명 차아염소산칼슘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수분을 흡수하면 분해되기 쉽고 산소를 방출해, 철이 함유된 금속 등과 함께 둘 경우 자연 발화됩니다. 냄새 천장에서 떨어진 빗물이 표백가루를 보관하던 철 뚜껑과 만나면서 발

화됐고, 그 불이 옆에 있던 종이상자에 옮겨 붙은 것이었습니다.”

진 소방장은 이때 정말 화재조사관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애꿎은 시민이 누명을 쓸 뻔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 나는 소방관이다

스스로 ‘햇병아리’라 말하는 진 소방장은 고등학생 때 보던 EBS 화학 강의를 다시 보며 공부하고 있다. 또 틈날 때마다 화재 사례를 연구하고 유사 논문을 분석하며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방염실에서 불이 나는 조건을 설정해 화재 재연 실험을 한다. 근무가 없는 날에는 화재가 난 다른 지역의 2차 조사 현장에 ‘굳이’ 참여해 베테랑 화재조사관이 정리한 보고서와 자신의 보고서를 비교·분석하는 등 열혈 새내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여성 소방관들은 체력적인 한계로 인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여성성’을 내세우며 남성 대원들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별을 떠나 소방관이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나 목표 없이, 1년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소방관이 된 그는 지금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의 곁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때마다 새삼 자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지휘관, 섬세하고 공정한 화재조사관,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늘 도전하는 소방관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지난 2003년  
화재진압대원으로  
시작해 2008년부터  
각종 내근 부서 업무를  
해 온 진 소방장은  
화재조사관이 되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 아이들 스스로 배우는 즐거운 교통안전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키즈오토파크



## 교통안전체험교육

- 대상: 6~10세 어린이(유아와 초등학생 구분하여 교육)
- 일정: 매주 월~토(월요일은 오전 교육만 시행)
- 시간: 오전·오후 1일 2회 교육 / 인원: 매회 40명

## 교통안전면허시험

- 대상: 키즈오토파크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초등학생

애니메이션 <카>, <꼬마버스 타요>를 즐겨보고, 유아용 전동차를 운전하며 노는 요즘 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은 친구로만 여긴다. 하지만 한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발생한 10만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6~9세 어린이의 사상률이 제일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와 떨어져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 지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글 김아름 / 사진 키즈오토파크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한 ‘키즈오토파크’는 어린이들이 직접 운전을 해보며 재미있게 교통안전을 배우는 체험관이다. 2009년 개관 이래 현재까지 7만여 명의 어린이가 이곳을 다녀갔다. 100% 사전 예약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은 체험 2~3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 참가자의 70% 이상이 6, 7세 미취학 아동이지만 아이들의 발달에 따른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체험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초등학생의 경우 오히려 이해가 빨라 보다 효과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관 입장은 교육 10분 전부터 가능하며,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보호자는 체험관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교육은 전반적으로 주행교육, 보행교육, 안전띠교육, 입체영상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며 아이들은 10명씩 4개 팀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는다. 가장 인기 있는 교육은 주행교육. 실제 자동차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체험 차를 타고 체험장 내 도로를 운전해보는 시간이다. 차선을 따라 왼쪽,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다보면 어느새 도착지점에 닿는다. 주행교육을 마친 아이들의 얼굴에는 운전을 더 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주행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은 신호등과 표지판 신호 지키기. 운전 중 자동차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폐달에서 발을 떼어 차를 정지시키고, 다시 초록 불이 들어오

면 폐달을 밟아 전진한다. 이후 S자 곡선도로와 터널을 지나 도로 우측에 있는 ‘정지’ 표지판에 맞춰 정차한 뒤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교사들은 각 지점에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돋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차선을 제대로 지키며 운전을 골잘 하지만 때때로 처음 해보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의 체험차가 보도 위로 오르거나 코스를 이탈해 달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체험차는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 아이가 부상을 입는 경우는 드물다. 또, 매달 자동차 정비 업체가 방문해 체험차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왜’와 ‘어떻게’를 알려주는 눈높이 교육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육이 주행이라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보행이다. 때문에 보행교육만큼은 아이들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반복 학습시킨다. 먼저 시청각교육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 취해야 할 안전 행동을 배운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여러 번에 걸친 반복 교육을 받고 나면,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보도경계석 한 발자국 뒤에 서서 기다려요!”, “초록 불이 들어오면 좌우를 살핀 다음 건너요”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게 된다. 보행실습은 주행교육장 옆에 있는 보행교육장에서 실시한다. 다른 친구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도를

건너게 되는데, 이미 시청각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법을 익힌 아이들은 배운 내용대로 안전하게 도로를 건넌다. 이어 좀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안전교육과 실제 자동차의 사각지대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밖에도 안전띠교육과 3D 입체 영상교육을 통해 생활 속 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 모든 과정을 마친 아이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한 초등학생에게는 어린이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뤄지며,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필기시험에 통과한 후 실기시험인 보행시험과 주행시험을 치르게 된다. 모든 시험에 통과한 학생에게는 어린이교통안면허증이 발급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키즈오토파크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왜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해 쉽게 이해시킨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교육에도 지루할 틈이 없다. 또 안전지도교육을 전문적으로 받는 안전교사들이 소규모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까닭에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정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등을 주제로 한 인형극 등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용안내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내, 02-455-7119
- <http://www.kidsautopark.org>
- 교육비: 무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예약제
- 법정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월요일 오후 휴관 / 보호자 및 교육 대상이 아닌 어린이는 입장 불가



입 밖으로 끼내기 힘든 상처라면 얹지도 말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 마음을 조용히, 그리고 솔직히  
그림으로 그리면 된다. 어쩐지 그 그림이 토닥토닥  
위로를 건네는 것 같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 이경아 / 도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임상미술치료>,

이담북스, 김선현 지음 / 일러스트 원혜정



### 손으로 웃고, 울고, 말하는 치료

그림, 조소, 디자인, 서예, 공예 등의 미술 활동을 통해 환자의 심신 상태를 진단하고 나아가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호전을 도모하는 치료법을 임상미술치료(Clinical Art Therapy)라고 한다. 비언어적 수단인 미술은 언어 표현이 익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편안한 도구가 된다.

특히 무의식 속에 시각적 이미지로 남아 있는 외상을 끌어냄으로써 당시의 경험을 재현하고 통합할 수 있으며,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정서 장애를 회복하도록 돋는다. 본래 미술이 갖고 있는 정화

기능과 창조 과정은, 손상되고 불안정한 감정을 완화하며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킨다.

그렇다면 임상미술치료는 미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림을 잘 그려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창의적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빌굴하고 향상시켜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탐색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들은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보상을 얻는다.

### 절망을 그리고 희망을 만지다

PTSD 환자의 심리치료는 안전, 기억과 애도, 일상과의 연결 단계로 진행된다. 임상미술치료도 마찬가지다. 환자 스스로 외상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안전감을 제공해 줘야 한다. 환자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외상적 사건의 경험을 통해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외상 경험은 자아감을 잊어가거나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화상 또는 신체화를 통해 자신이 전반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외상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끔 한다. 외상에 대한 기억은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그 기억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며, 또 기억을 해야만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회피할 경우에는 고통,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이 지속된다.

그 후 경험자의 입장이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외상을 바라보고 느끼도록 해 과거 일들에 대한 갑작스럽고 생생한 회상인 ‘플래시백’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영화감독이 되어 외상적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포스터로 만들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한 이미지와 문구를 이용해 작업함으로써 외상적 사건에 긍정적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외상의 경험을 제공한 대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 복수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리기 위해 용서한다. 가해자와 자신 모두를 용서했다면 외상을 통해 성장할 시간이 된 것이다.



외상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외상을 치유할 수 있다.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들’, ‘받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 등을 그려보며 자신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 PTSD 환자의 미술치료 사례

김선현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임상미술치료>를 통해 다양한 미술치료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유가족 자녀가 그런 그림에는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은 배가 무겁고 균열된 것으로 표현됐다. 하지만 당시의 높은 파도와 비바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약한 선으로 잔잔한 물결을 그림으로 써 아빠가 구조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무의식 중에 드러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AI로 닭, 돼지 등의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던 한 군인은 그림 속의 자신을 얼굴 없는 몸, 한 손으로 자신의 봄보다 큰 닭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냈다. 또 살처분되는 돼지와 닭들을 모두 붉은색으로 그려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 외면하고 싶은 마음과 상실감을 표현했다. 당시 살처분에 동원됐던 한 공무원은 돼지의 모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묻자 “눈이 굉장히 맑았다”며 동그랗고 빛나는 돼지의 눈을 그리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어두운 계통의 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다 ‘요즘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여행을 꿈꾸며 따뜻한 색상으로 바꿔 칠해 기대에 찬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그림으로 심정을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완화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미술치료에 참여했던 군인과 공무원들은 사건 충격 척도와 뇌파 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호전 됐음을 알 수 있었다.

###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미술치료

#### 나의 휴식처-편한 의자 만들기

##### 준비물: 점토, 도화지, 물

1. 자신에게 휴식처가 되었던 곳을 떠올린다.
2. 점토를 만져보며 느낌을 나눈다.
3. 편안한 모양의 의자를 만들어 본다(침대, 소파 등 모양은 환자가 원하는 형식을 취한다).
4. 그곳에 앉아 있을 때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감정차트-지금 나의 느낌 표현하기

##### 준비물: 사절지, 색한지, 가위, 풀

1.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느껴지는 감정별로 색(한지)을 사용해 표현해 보고 어떤 감정인지 적는다.
3. 도화지에 자신의 감정차트를 꾸민다.
4.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5.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지 이야기해본다.

#### 방패 만들기

##### 준비물: 일회용 은박접시, 셀로판지, 목공풀, 반짝이 재료, 매직

1. 어떤 좋지 않은 상황도 다 반사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방패를 떠올린다.
2. 은박접시와 각종 오브제를 이용하여 방패를 만든다.
3. 앞으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방패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야기를 나눈다.



# NEMA NEWS



119구급차 한 대,  
하루 평균 5회 출동

중앙119구조본부,  
정예 항공구조사 육성

## 119구급차 한 대, 하루 평균 5회 출동

소방방재청이 올해 상반기 119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119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5회 출동해 3.5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119구급대는 일 평균 6300회 출동해 4443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출동횟수 7.5%, 이송 인원은 6.2% 증가한 것이다. 시간대별로는 8~10시가 10.9%로 가장 많았고, 4~6시가 4.5%로 비교적 적었다. 월별로는 5·6월이 각각 18.7%, 17.7%로 가장 많았다. 장소별 이송 인원은 가정이 53.3%로 가장 많았고 학교(1.4%)가 가장 적었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의 경우,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등이 탑승해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만큼,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119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지도보고 찾아가세요!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소 지도서비스를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대피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http://www.safekorea.go.kr))의 '민방위 대피시설 바로가기'에서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 대피소의 주소와 지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실행하고, 화면에서 '민방공 대피소'를 선택하면 현재 위치 주변, 또는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민방위 대피소의 주소와 지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내 주변 대피소 확인하기'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해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 중앙119구조본부, 정예 항공구조사 육성

중앙119구조본부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제15기 특수항공구조과정'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국 시·도에서 선발된 구조대원 27명을 대상으로 산악·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 항공구조기술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구조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과 사고수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했다.



민간건물 재난위험시설  
정비



'8월 25일 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지원



민방위 마스코트 '민이와 방이'  
선정

구조대원의 체력과 수영능력 향상, 구조헬기의 호이스트 및 로프를 이용한 하강, 환자의 응급처치, 들것을 이용한 요구조자의 이송, 항공기 비상탈출 등의 주요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이 재난유형별 전문 항공구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 민간건물 재난위험시설 정비

민·관 합동 재능기부로 재난취약시설 정비 개선 사업이 진행됐다. 소방방재청은 포스코에너지(주)와 재능기부봉사단과 함께 지난 8월 29일 인천 '오트지역아동센터'의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인천 오트지역아동센터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한 시설이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재능기부봉사단은 전기와 가스설비를 점검하고, 화재감지 시스템 설치, 교실 도배 등의 활동으로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 화재예방·생활안전 포스터 공모

소방방재청은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

링, 상상화, 포스터, 웹툰, 창작동요 등을 공모한다.

'제67회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와 한국소방방송(119fbn.fire.go.kr), 사·도 소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상 및 소방방재청 장상 등과 1,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12월 중에 발표된다.

##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종합훈련 실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소방방재청, 국토교통부, 인천시, 중앙119구조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진에어 등 민·관 40여 개 기관 600여 명이 참여하는 항공기사고 대응 골든타임사수 인명구조 종합훈련이 9월 3일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층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골든타임(비행기 사고 시 30분)에 초점을 두고, 사고항공기 승무원이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빠르게 승객을 대피시키며 승객 스스로의 비상탈출능력을 높이는 훈련이 이뤄졌다. 또한, 긴급출동,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초동조치 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 '8월 25일 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지원

소방방재청은 지난 8월 25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25억 원을 지원했다.

긴급생활 안정자금의 대상은 주택·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며, 소방방재청은 부산(기장, 금정, 북구, 동래, 강서) 지역에 17억 원, 울산(울주) 6억 원, 경남(창원, 고성) 2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국세 납기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 한 번만 신고하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불편을 줄였다.

## 민방위 마스코트 '민이와 방이' 선정

민방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마스코트를 공모한 결과 '민이와 방이'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시상은 지난 9월 17일, 충주에서 열린 제3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선정된 작품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민방위 교육,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NEMA NEWS



## 개발도상국에 '소방재난대응' 기술 전수

###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또는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 공장·창고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창고 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 25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외부 용역업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맡겨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을 중 1만 5000㎡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한정시켰다.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 개발도상국에 '소방재난대응' 기술 전수

중앙소방학교는 2014 국제교육과정(KOICA 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29

일까지 7개국 12명의 소방·재난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교육 '지진 등 대형재난 대응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는 온두라스, 에콰도르, 벨라루스,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등 7개국의 소방관서와 재난관련 기관 종사자 12명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학습, 긴급대응활동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전파하여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지휘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전문 지식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이론 강의를 비롯해 실습, 현장견학, 산업시찰 및 문화체험 등 한국의 재난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전통문화까지 두루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극한의 재난현장에서도 살아남는다

지난 7월, 소방방재청은 경기도 고양시 새마을회 지회장, 이사, 동 협의회장, 동 부녀회장 등 1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제29기 '재난현장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된 건물 등에서 살아남기, 물놀이사고 대처방법 등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험형 교육훈련이다.

'재난현장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극한의 재난현장에서도  
살아남는다



화학사고 대비 대규모  
종합훈련 실시



소방방재청과 안랩,  
업무협약 체결

중앙119구조본부가 국내외 재난현장에서 축적한 전문구조·생존기술들을 재난취약계층에게 교육함으로써 재난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화학사고 대비 대규모 종합훈련 실시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주)한국 바스프에서 다량의 화학물질(톨루엔) 유출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이 지난 7월 23일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주)한국 바스프 내 옥외탱크저장소에 보관 중이던 톨루엔이 배관 정비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다량 유출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상황을 가상해 인명구조·누출차단·통제구역 설정·사고확대 방지조치·오염원 제독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현지 실제 훈련의 참여기관은 18개 기관 및 단체(여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중앙119구조 본부 특수사고대응단, 여수소방서, 화학물질안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고용노동지청, 여수경찰서, 31사단 화생방지원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로 총 150명의 인원과 장비 34대(지휘차 2대, 화학차 2대, 펌프차 3대 등)가 동원됐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국가 산업단지 내 화학재난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각 기관의 대응절차를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있었다. 또한, 과거의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전과 동일하게 상황을 부여하고 출동부터 상황판단회의, 센터 초기대응, 특수사고대응단 지원출동 등 실제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훈련을 실시하여 실효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단계별 미비사항을 점검하여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6월 2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LG화학(주)에서 실시한 서산 합동방재센터 훈련을 시작으로 이번 훈련까지, 5개 센터의 화학재난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민·관 합동 전문가 소방헬기 안전점검

소방방재청은 지난 7월 말, 광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와 동일한 기종에 대하여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에 앞서 헬기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열고 점검방향과 중점 확인사항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동일 기종(AS-365, 7대) 점검에는 헬기 제작사(에어버스 헬리콥터) 지정 정비센터 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참여토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소방헬기에 대한 안전점검 도태로 인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헬기가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 소방방재청과 안랩, 업무협약 체결

소방방재청은 (주)안랩이 운영하는 '개인사용자용 무료백신 V3 Lite'를 통해 민방위 정보 알림 서비스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29일부터 1년 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을 위한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자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한 결과물이다. 민방위 경보사이렌뿐 아니라 TV, 라디오 및 스마트폰, DMB, 개인 컴퓨터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민방위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은 소방방재청이 제공하는 민방위 및 안전 정보를 '개인사용자용 무료백신 V3 Lite' 알림 창을 통해 볼 수 있고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내용을 클릭하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은 민방위 훈련 일정 등 캠페인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추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시간 경보 문구를 표출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협의하게 된다.

### 소방방재청 정책고객으로 모십니다!

정책고객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께는 소방방재청의 최신 정책 및 행사 소식 등을 매주 e-뉴스레터로 보내드리고, 주간안전사고예보, 주요 행사 관련 정책 메일도 수시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설문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 이벤트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고객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ninegate@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진짜 재난은 우리 안에 있다

## 눈먼 자들의 도시

노벨문학상 수상자 주제 사라마구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옮긴 이 작품을 향한 시각은 판이하다. 소설을 먼저 접한 이들은 '너무 부족한 영화'라 하고, 영화로 처음 접한 이들은 '너무 과했다'고 입을 모은다. 어떤 평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지만 원작자와 영화감독, 그 둘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재난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 김아름

# BLINDNESS



눈먼 자들의 도시 BLINDNESS

2008년 개봉 / 120분 / 미국 외 /  
미스터리·스릴러 / 청소년관람불가  
감독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출연 줄리안 무어, 마크 러팔로 등

어느 평범한 오후, 운전 중이던 한 남자가 갑자기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차를 세운다. 이후 그를 집에 데려다 준 다른 남자, 그를 간호한 아내, 그가 찾은 병원의 환자들과 의사(마크 러팔로)까지 모두 눈이 멀게 된다. '우유 속을 헤엄치는 듯' 눈 앞이 온통 새하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현상. 원인과 치료법을 알 길 없는 정부는 전염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보이지 않는 이들을 낡은 병원에 격리시킨다. 날마다 급증하는 맹인들로 곧 병원은 아수 라장이 된다. 그곳에는 유일하게 앞이 보이는 이가 있으니 바로 눈이 먼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눈먼 자처럼 행동하는 의사의 아내(줄리안 무어). 음식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큰 혼란이 일고, 병원을 지키던 군인

들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남편과 몇몇의 다른 눈먼 자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온다. 이미 온 세상은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뿐. 모두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것을 뺏기 바쁘다. 여전히 앞을 볼 수 있는 의사의 아내는 함께 병원을 털출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먹이고 씻기며 지옥 같은 삶을 베타나간다. 그러던 어느 아침, 함께 머물던 '처음으로 눈이 먼 남자'가 시력을 회복하며 이 현상의 끝을 암시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의문의 현상을 주제로 한 이 영화는, 시각을 상실함으로써 말 그대로 '눈에 봐는 것 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끝내, 인간다움마저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담아낸다.



## '인간'을 잃은 사회는 재난보다 무섭다

눈 깜짝할 새 눈이 먹는 현상과 강력한 전염성으로 공포에 떨게 된 이들이 보인 첫 반응은 철저히 남을 배척하는 것이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눈먼 자들을 가두기 급급하고, 군인들은 통제를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차 없이 총을 들이민다.

이런 모습은 배척을 당한 이, 눈먼 자들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 보급 받은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을 행하고 식량을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곧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여자를 조건으로 내건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은 비참한 심정을 토로 했지만 먹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앞세웠다.

병원 밖 세상은 더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다니며 하루 종일 먹을 것과 쉴 곳을 찾아다녔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짚주린 배를 채웠다. 뒤처지면 벌려 졌고 벌려진 자들은 짚주린 개들의 먹이가 되었다.

앞을 볼 수 있었던 의사의 아내 역시 인간적일 수 없었다. 자신과 새로운 가족을 위해 남을 죽였고, 먹을 것을 훔쳤으며 더 약한 이들을 외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볼 수 있었다. 차라리 눈이 보이지 않기를 원했지만, 의사의 아내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훔

로 지켜보아야 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이지 않은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함께 지켜보았다.

## 우리 사회 속의 눈먼 자들

병원 내에서 만들어진 권력의 주축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이었다. 이미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익숙하지만 대부분의 눈먼 자들은 갑자기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낯설었다. 지팡이나 벽 없이는 한 발짝도 마음껏 내딛을 수 없는 처지. 보이는 자들에 의해 지어진 사회는 눈먼 자들에게 너무 위험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국내 시각장애인의 수는 29만. 각자 다른 이유로 시각을 잃었지만 그들은 똑같이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이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화 속의 백색은 실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색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의 색이다. 1980년 세계맹인협회가 매년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지정, 각국에 선포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외 일반 지체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보행에 쓰는 지팡이에 흰색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흰색 지팡이를 가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이를 알리거나 돌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 그리고 눈을 감은 우리들

영화 속 눈먼 이들 중 몇몇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족을 느낀다. 더 이상 재산, 지위, 외모, 나이 등으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얇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것에 열광하고 그 틀에 스스로를 맞추려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소용없어진다. 비로소 다른 이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영화가 결말에 이르면 감독은 한 인물의 내레이션을 통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한다. "우리는 눈이 멀어버린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 전염병을 다룬 다른 영화들

#### 아웃브레이크

1967년, 의문의 출혈열 발생으로 심각한 사태에 이른 아프리카 사이르. 미군은 해당 지역에 폭탄을 투하해 모두를 몰살시킨다. 30년 후, 또 다시 발생한 출혈열은 미국에까지 전염된다.

1995년 / 125분 / 미국 / 감독 볼프강 페터젠

#### 칠드런 오브 맨

서기 2027년. 세계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재앙을 맞이한다. 이 가운데 기적적으로 임신한 한 흑인 소녀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시투가 시작된다.

2006년 / 108분 / 영국, 미국 / 감독 알폰소 쿠아론

#### 감기

감염속도 초당 3.4명, 치사율 100%의 최악의 바이러스 빌병에 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발령하고 도시 폐쇄라는 결정을 내린다. 피할 새 없이 격리된 이들은 큰 혼란에 휩싸인다.

2013년 / 121분 / 한국 / 감독 김성수

# 가을, 원더풀 아웃도어 라이프

가을은 야외 활동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다양하다.  
올 가을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산과 들, 바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글 이현주

## 등산 Q&A

계절 안전

### 가을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가 짧아지는 계절이므로 하산 시간을 앞당겨 잡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을 감안해 무리한 등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휴대용 랜턴, 라디오, 밧줄, 구급약을 준비하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가벼운 담요나 겉옷을 챙긴다. 겨울을 준비하는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물 열매나 버섯 등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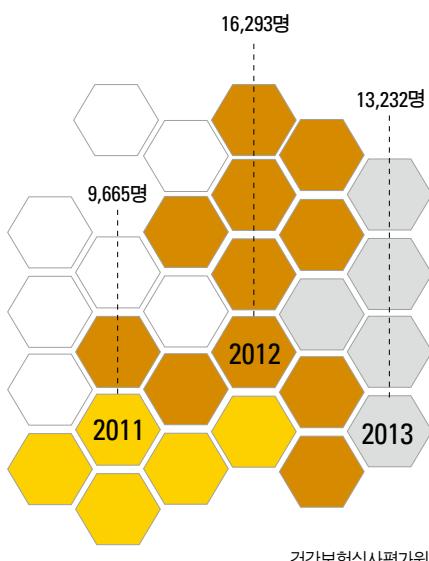
### 가을철 특히 주의해야 할 산악사고

- ① 실족으로 인한 미끄러짐과 탈진
- ② 음주 후 산행,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호흡곤란 마비
- ③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난사고

### 가을 산행,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은?

등산 전 꼭 스트레칭을 한다. 등산객들은 흔히 '입산주', '정상주', '하산주' 등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으나, 음주 시 운동능력, 판단력 등은 떨어지는 반면 담력은 커져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절대 산행 도중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 하루 8시간 정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가급적 30kg 이상의 배낭을 지지 않으며, 걸을 때는 발 디딜 곳을 살펴 천천히 걷고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를 자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벌쏘임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환자



### 야생동물과 마주쳤을 때는?

산에서 멧돼지나 곰 등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소리를 지를 경우 자극을 받아 공격해올 수 있기 때문. 멧돼지나 곰과 마주쳤다면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천천히 뒷걸음치며 그 자리를 벗어난다. 먼저 발견했다면 나무나 바위 등에 숨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뱀을 만났을 경우에는 절대 먼저 건드리지 말고 피해 간다. 만약 뱀에 물렸다면,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 편안히 눕히고 물로 부드럽게 닦아낸 후 헝겊 등으로 상처의 약 10cm 위쪽을 둑어준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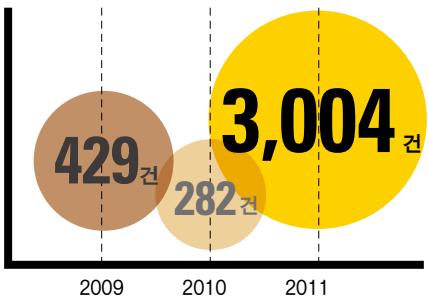
### 벌에 쏘였을 때는?

'벌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말벌에 쏘일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 산행 시에는 벌을 자극하는 짙은 향의 화장품과 밝은 계통의 옷을 피한다. 벌에 쏘였을 때, 벌침이 몸에 남아 있다면 신용카드 같이 납작한 것으로 피부를 밀어 벌침을 뽑아낸다. 벌침을 뽑은 후에는 쏘이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해주고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 식은땀, 구토,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 캠핑 Q&A

### 계절 안전

### 캠핑장 안전사고



### 가을 캠핑 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은?

가을 캠핑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은 화재와 화상. 건조한 기온 탓에 마른 낙엽, 풀 등에 불이 붙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을 피울 때는 특히 주의한다. 또한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져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온열기구나 핫팩을 사용할 때는 일정 부위만 지속적으로 뜨거워져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맨살에 2시간 이상 닿지 않도록 한다.



### 가을 캠핑 시 꼭 필요한 물품은?

가을은 사계절 중 일교차가 가장 큰 계절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난로와 전기방석, 담요 등 방한 용품을 철저히 챙긴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훨씬 따뜻하므로 여벌옷을 넉넉히 가져간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핸드폰 여분 배터리와 충전기를 휴대한다. 말벌이나 진드기 등에 쏘이지 않도록 해충기피제와 화상을 대비해 화상연고도 챙긴다. 캠핑장 내 소화기가 없을 수 있으므로 간이 소화기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

### 텐트 칠 때 유념할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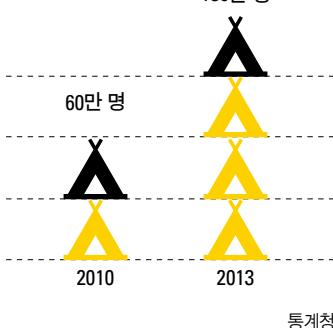
텐트는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치한다. 늦어도 해지기 1시간 전에는 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텐트 칠 장소를 고를 때는 최대한 평평한 곳을 찾고, 되도록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 가파른 지형 근처는 산사태나 낙석의 위험이, 철탑이나 큰 나무 밑, 특히 산길에 설치된 철계단, 쇠줄, 전깃줄 등은 낙뢰에 맞을 확률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텐트를 칠 때는 아이가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팩을 땅 속 깊이 박고 수시로 망치질을 해준다.

### 바비큐 할 때 주의사항은?

나무나 수풀, 텐트로부터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물통, 소화기, 모래 등을 근처에 두어 불이 났을 때 바로 끌 수 있도록 한다. 불을 붙일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음식을 구울 때는 길이가 긴 집게를 사용하고 보호 장갑을 끼다. 타고 남은 숯은 물을 뿌려 확실히 불을 끈다.

### 캠핑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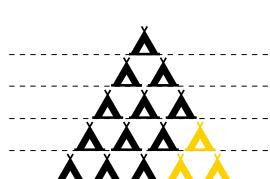
130만 명



통계청

### 캠핑장

1,866 곳



### 등록 캠핑장

230 곳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기준

## 자전거 Q&A

계절 안전

### 자전거 탈 때 꼭 필요한 장비는?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90%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쓰고,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 징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다른 것이 힘들다 해도 헬멧 착용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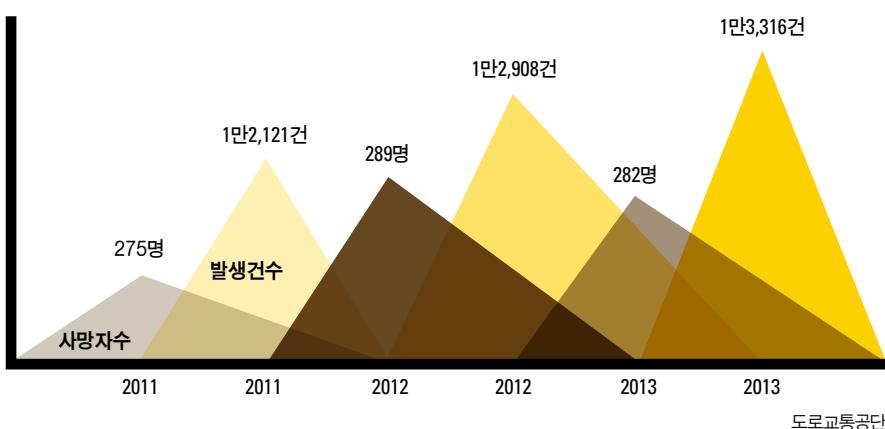


### 자전거 사망사고 시 부상 부위

머리	가슴	얼굴	다리	허리	배
74.4%	7.0%	4.9%	1.8%	1.4%	1.3%

도로교통공단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도로교통공단

###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 어떻게 다녀야 할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가장 바깥 차선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운행하며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한다. 사거리를 통과할 경우 차량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전하지 않고 직진 신호를 기다려 직진한 후 대기하다 다시 진행 방향 신호등이 켜지면 직진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사람이 함께 주행할 경우에는 한 줄로 주행한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는 인도로 주행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



###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은?

앞뒤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핸들이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바퀴의 공기는 적당한지 확인한다. 바퀴의 공기는 안장에 앉았을 때 타이어가 바닥에 닿는 면이 10cm 정도인 것이 좋다. 그 밖에 페달에 이상은 없는지, 전조등과 후미등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체인이 늘어지거나 녹슬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장거리를 달리기 전에는 안장 높이가 불편하지 않은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낚시 Q&A

계절 안전

### 바다낚시 기본 안전수칙은?

바다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상정보.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낚시를 나서지 않는다. 어선을 이용할 때는 무허가가 아닌지 확인하고,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타지 않고 곧바로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무리한 출항이나 정원 초과 요구에는 승선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배에서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난간에 걸터앉지 않는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휴대전화와 여분의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를 꼭챙긴다.

### 갯바위 낚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배와 마찬가지로 갯바위에서도 꼭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배에서 내려 갯바위에 오를 때는 무리하게 짐을 들지 않고 빈 몸으로 오르며 짐은 손으로 전달받는다. 갯바위에서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함께 내려 행동하고 낚시신발을 신어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일기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기상악화가 예상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철수한다. 휴대폰으로 출조지의 지역번호를 누르고 131번을 누르면 최근 기상예보를 들을 수 있다. 간조와 만조 시간을 확인하고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갯바위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는다.

### 야간 낚시에 필요한 것은?

야간 낚시는 밤밀이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무인도에서의 야간 낚시는 더욱 위험하므로 절대 하지 않는다. 야간 낚시를 하게 될 경우는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랜턴을 2개 이상 준비하는데, 소형 낚시용과 대형 이동용 등 두 종류의 랜턴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밤사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담요 또한 필수품.

### 바다낚시 중 사고가 났을 때는?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속히 전화한다. 만약 갯바위나 선박사고로 조난을 당하게 되면 휴대전화, 불빛, 연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조 요청을 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



## 참 착한 단맛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맛보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말은 음식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듯하다. 후성유전학박사 캐서린 샐너핸의 저서 <왜 우리는 전통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따르면 우리는 유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므로, 조상이 먹던 음식이 우리의 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즘 우리에겐 오히려 ‘우리 것’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잊혀져가는 우리의 맛 중에는 되살리고 싶은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로는 옛기름으로 만든, 달콤한 옛이 있다. 글 김아름 / 사진 한국민속촌



## 천년을 내려온 우리 고유의 먹거리

엿이라고 하면 전통 한과를 파는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쌀과 엿기름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에 따라 그 맛은 천지 차이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엿기름과 섞어 뜨듯한 아랫목에서 한 밤 재우면 달달한 식혜가 되고, 이것을 다시 큰 솥에 봇고 반나절을 끓이면 끈적끈적한 조청이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끓여내야 까만 엿인 갱엿이 되는데, 조청이 속에 놀아붙지 않고, 끓어 넘치지도 않도록 나무 주걱으로 쉬지 않고 저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묽던 엿은 점점 굳어 딱딱해진다. 비로소 완성된 엿.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흰엿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갱엿이 식기 전에 자빨리 ‘바람을 넣어야’ 한다. 뜨거운 갱엿을 맞잡고 잡아당기는 과정을 ‘엿에 바람 넣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 백 번의 바람을 넣어야 맛 좋은 흰엿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이야 달달한 주전부리가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엿이 유일했다. 때문에 엿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다. 또 오늘날 설탕을 요리에 이용하듯 당시에는 묽은 엿을 음식에 넣어 단맛을 냈기에, 월동준비에는 김장과 함께 엿 만들기가 빠지지 않았다. 대부분 찹쌀이나 메밀을 주재료로 사용하지만, 지역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엿을 만들기도 했다. 전라도의 고구마엿, 충청도의 무엿, 강원·경상 지방에는 옥수수엿이 있었으며 제주도에는 꿩이나 닭을 넣어 만들어 먹었다.

##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은 약선

엿은 인공적으로 설탕을 첨가한 사탕·초콜릿과 달리 ‘건강한’ 단맛을 낸다. 엿의 주재료 중 하나인 엿기름은 보리를 발아시켜 만든 것인데, 보리에 씩이 나면서 녹말을 당화하는 효소가 생기고, 이 효소 작용으로 엿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단맛이 나는 것이다. 이 단맛은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질환에 좋다. 위장은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때문에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어 위의 불편함을 가져온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신경성 복통을 두고 ‘이급(裏急)’이라 한다. 중국 전통의 약물총서인 <중약대사전>과 <본경소증>를 보면 이급에 백작약, 계지, 생강 등에 물엿을 넣고 달인 ‘소간증탕’을 처방한다. 엿에 ‘비위의 기를 완화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며, 진액을 생성하고 속을 촉촉이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엿은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엿의 단맛을 내는 엿당은 그 자체가 두 개의 포도당이 결합해 생성된 것으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생성된 설탕보다 포도당의 공급량이 높고 체내 흡수가 빠른다. 따라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하는 두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인 것. 조선왕조에서는 매일 아침, 잠든 뇌를 깨우기 위해 묽은 엿을 두 숟가락씩 떠먹었을 정도로 예로부터 엿은 두뇌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양제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끈적끈적한 엿을 두고 ‘대학에 꼭 불어라’는 의미를 담아 입시준비생에게 선물한다. 하지만 엿의 이러한 장점을 따지고 보면, 시험 이전에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엿의 효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엿은 허약한 기력을 보하고 오장을 윤택하게 하며 기래와 기침을 멎게 한다. 이때 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오직 찹쌀로 만든 엿’이라 전한다.

어떤 음식도 과하게 먹는다면 좋을 수만은 없는 법. 엿의 주성분인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이를 지나치게 먹을 경우 우리 몸은 체내에 쌓인 포도당을 지방의 형태로 변화시켜 저장한다. 결국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 또 인슐린 생성에 문제를 일으켜 당뇨를 비롯한 고혈압, 심장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평소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엿을 간식으로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엿에 따라서는 끈적임이 심해 이에 잘 달라붙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충치균을 유발할 수 있으니 치아 관리에도 신경쓰도록 한다.

엿은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다. 고려 후기의  
문인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곡집>에  
등장하는 ‘맥락(麥酪)’이라는  
말을 두고, 고려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엿이나  
물엿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라 유추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한여름 뜨겁기만 했던 햇볕이 따사롭게 느껴지고 바람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면 주말을 집에서 보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놀이공원은 가을철 필수 나들이 코스. 다음 몇 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놀이공원에서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글 이현주 / 인포그래픽 강인혜

## 조금 주의하면 훨씬 재미있는 놀이공원



### 놀이공원 안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놀이공원 안전사고는 총 106건.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72건으로 68%에 달한다. 어린이와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했을 때는 그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놀이공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이용객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다. 무엇보다 규칙을 잘 지키고, 안전요원의 통제를 잘 따르는 것이 좋다.





## 놀이기구에 타기 전

탑승 대기 전 안내 방송을 잘 듣고 주의사항을 알아둔다. 순서를 기다릴 때는 넘어지거나 놀이기구에 부딪힐 수도 있으므로 울타리에 걸터앉지 않는다. 긴 목걸이나 끈이 달린 옷은 기구에 걸릴 수 있으므로 벗거나 잘 간수한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탑승한다. 전기시설이나 화기시설, 울타리 내부 등 접근금지 구역이나 운행하지 않는 놀이시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어린이 안전

어린이와 놀이기구를 탈 때는 기구마다 명시되어 있는 키 제한을 철저히 지킨다. 일부 놀이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탈 경우 규정상 키보다 작은 어린이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단, 이때 보호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놀이기구를 탈 때는 어린이를 꼭 안쪽에 앉히고 안전레버나 벨트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탑승 후 하차 시에는 어린이가 혼자 내리지 않도록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를 챙기는 것이 좋다.



## 놀이기구에서 내릴 때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안전장치를 풀지 않는다.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놀이기구에서 뛰어내리는 것 또한 위험 행위. 퇴장할 때는 소지품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천천히 순서대로 정해진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며, 뛰지 않는 것이 좋다.

##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바른 자세로 앉아 안전레버와 벨트를 장착한다. 하체를 고정하도록 되어 있는 놀이기구는 개인별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함께 자리에 앉은 사람 모두 안전바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한다. 안전장치가 없는 놀이기구라면 탑승 중 일어서거나 뛰어내리는 등 돌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창 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음료수나 음식 먹기, 친구들과의 과격한 장난은 절대 금물.



## 놀이공원에서 사고발생 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무엇보다 119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다. 연락할 때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한다. 머리를 다쳤을 경우는 몸을 고정해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토하거나 잠이 온다고 하며 코피가 날 경우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다.



# 집 나설 때 더 필요한 구급약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은 옛말. 요즘은 기회만 되면 여행이나 캠핑 등 집을 떠나 즐거움을 찾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집 밖을 나서려면 준비물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구급약이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나 캠핑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글 이현주 / 김수 양인규(약사, 블로그 '바른 약 사용설명서' 운영자)  
<http://blog.naver.com/muinjidae>

## 멀미약

멀미약은 제제에 따라 불이는 패치, 마시는 액상이나 혼탁액, 그리고 정제나 산제 등 형태가 다양하다. 성인은 이들 제제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소아의 경우 불이는 패치형 멀미약은 부작용이 심해 처방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소아라면 복용하기 편한 짜먹는 혼탁액 형태의 멀미약이 좋고 성인은 복용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성분에 따라 멀미에 대한 효과의 지속 시간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용법대로 복용하면 된다.

## 자외선차단제

햇빛 아래서 오래 활동할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6개월 미만의 유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어린이라면 먼저 소량을 손목 안쪽에 발라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살핀 후 바른다.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식약청 허가를 받은 ‘기능 성화장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해충기피제

화학성분과 천연성분으로 나뉜다. 화학성분은 성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니 제품의 용법과 용량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천연성분 제품으로는 패치, 팔찌, 목걸이, 스프레이 타입 등이 있는데 식약청에서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제품들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품의 의약외품 허가사항을 꼭 확인 후 구매하여야 한다. 지속 시간이 2~4시간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

벌레 물린 부위에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긁으면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바르는 약은 생후 1개월 이상과 생후 30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나누며 약이 없을 때는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면 증상이 완화된다. 아이들은 벌레에 물리면 물린 부위가 빨갛게 통통 부어오르면서 딱딱해지고 진물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연고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압박붕대

압박붕대는 뼈가 골절되거나 뼈었을 때, 출혈, 살을 베이거나 찢겨 피부가 벌어졌을 때 사용한다. 너무 세게 감으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하거나 부을 수 있고 너무 압하게 감으면 해당 부위에 압박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압박의 강도가 중요하다. 요즘은 사용하기 편한 자기접착식붕대 제품들도 나와 있다.

## 해열진통제

여행을 떠나면 평소보다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일교차도 심해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 어린이용 해열진통제는 시럽류와 쥐어블정이 있으니 복용하기 편한 제제를 선택하면 되고, 어른의 경우 여행지에서는 특히 음주가 잦은데, 해열진통제 중에는 음주 후 복용이 금지된 제품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 소화제 & 지사제

여행, 캠핑 시에는 아무래도 집에서보다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화제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음식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으므로 지사제도 함께 챙긴다. 심한 복통이나 고열이 동반되는 배탈은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응급실에 바로 가도록 한다.

### 여행지에서도 약 조심

여행 시에는 짐을 줄이기 위해 약을 본래 용기가 아닌 휴대용 용기에옮겨 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약 이름과 용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혹시 약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렸다면 임의대로 복용하지 말고 포털사이트에서 약 이름으로만 검색해도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부에서 보관 시 햇볕 아래나 습기가 많은 곳에 약 품을 둘 경우 변질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또한 주의한다.





## 우리만 몰랐던 이야기

웨델해표:  
*Leptonychotes  
Weddelli*



“내 이름은 웨델해표, 뚱뚱한 몸 때문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 빙하 위에서 낮잠 자는 걸 제일 좋아해.”

“나는 맨드릴개코원숭이야. 고향은 중부 아프리카고, 뛰든 잘 먹지만 특히 바위 밑에 있는 곤충을 즐겨 먹지.”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마트라 오랑우탄, 설피, 삼악어 등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발행하는 <레드리스트>에 오른 멸종위기 동물은 3800여 종에 이르지만 우리는 그들 중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각종 SNS에 자신을 드러내고 관심 받기 바라는 우리들은, 정작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멸종위기동물을 가엾게,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몇몇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구매는 사양하지만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그 관심이니까요.

#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배웁시다.

생명을 지켜주는 국민안전상식 「소·소·심」 캠페인



“초기화재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소화기, 소화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 소화기 사용법



안전핀을 뽑는다  
Pull pin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Aim at base of fire

## 소화전 사용법



문을 연다  
Open the door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Take out the hose

## 심폐소생술 순서



의식 및 호흡확인  
Determine unresponsiveness



119신고 및 AED 요청  
Call 119



손잡이를 움켜쥔다  
Squeeze handle



분말을 골고루 쓴다  
Sweep side to side



밸브를 돌린다  
Open the valve



불을 향해 쓴다  
Extinguish a fire



기습 압박 30회  
30 chest compressions



인공호흡 2회  
2rescue breathings

※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5분, 심정지 환자발생시 골든타임 4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